

'함평 생비빔밥 5첩 반상' 제도 올랐다

상차림기법·메뉴상품화 등
명인 대상 전수 교육 마쳐
한우 고급 한정식 육성 '시동'
점포·고객관리 전략도 전달



함평엑스포공원 내 먹거리장터에서 음식 전문가와 교육생들이 함평 생비빔밥 조리법을 연구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평 생(生)비빔밥 5첩 반상' 작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식 생(生)비빔밥 상차림기법 전수 과정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함평엑스포공원 내 먹거리장터(주막집)에서 운영됐다.
지역특산물인 한우 중심의 한정식 외식 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이번 과정은 지난 8월 1차로 진행된 전문명인 경영마인드 과정(10회)을 모두 수료한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집합식 요리실습 방식으로 총 3일간(10시간) 진행했으며 박중현 전남도 음식연구원장과 대학교수 등 요식분야에 정통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상차림기법, 메뉴상품화, 소스 레시피, 결들임 반찬 구성, 식품산업 연계 마케팅, 식재관리 구축 등을 상세히 전수하면서 참여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 교육 대상자들이 실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요식업자들인 만큼 교육 중간 경영현장도 직접 찾아 점포 활성화, 고객관리법 등 전략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 관광산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음식이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지역 특

이 담긴 함평식 한우요리, 함평식 생비빔밥 등을 고급 한정식으로 육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영광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호평

'행복드림버스' 복지관 순회 건강검진, 이·미용봉사 도와

영광군이 특수 제작한 버스를 이용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달 발대식을 갖고 운행에 나선 '행복드림버스'가 최근 대마면 복지관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사진)를 제공했다.
이 버스는 기초건강검진, 양·한방진료, 보건교육은 물론 군정홍보, 이·미용봉사, 발마사지, 공연, 법률·세무상담 등 윈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이동보건소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움직이는 종합복지센터로도 불린다.
영광군이 주민들의 높아진 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행복드림버스'는 주 3회 읍·면지역 경로당을 시작으로 월 1회 복지회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월에는 최근 3년간 기존 이동보건소가 운영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신안 왕새우 가격 하락...어가 '울상'

경기침체·소비부진 탓...군, 소비촉진 나서

전국 양식새우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지역 왕새우 어가들이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울상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kg에 1만 7000~1만8000원에 거래되던 양식새우 가격이 올 해에는 1만2000~1만3000원으로 하락했다.
왕새우는 고흥압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 피부노화방지 등의 효능과 함께, 키토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

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게르마늄과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신안 왕새우(사진)는 맛과 영양면에서 뛰어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 해는 고수온이 심하지 않아 집단폐사가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일부 폐사한 곳에서는 재입식이 이뤄져 생산량이 증가했다.
신안군은 가격하락과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왕새우 사주기 운동'에 나섰다.
지난 달 중순부터 군청 직원들이 왕새우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왕새우 소비촉진 운동으로 아직까지 출하를 하지 못한 양식 어가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구조금 지급

상담·치료·장례비 등...대상자 9명 결정

함평군이 올해 총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피해자 지원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범죄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해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함평군은 전남 청사 부군수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자 총 9명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함평경찰서와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조례제정 이후 최초로 범죄피해가족 11명에게 총 6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로 아동학대 등 친족 간 행해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영광군-영광경찰, 수색용 무인비행 장치 운용 협약

영광군이 지난 6일 영광경찰서와 수색용 무인비행 장치 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실종자나 재난 발생 시 무인비행 장치를 지원, 수색·구조 활동을 돕기로 했다.
영광경찰서는 무인비행 장치를 활용,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치매 노인, 자살 의심, 아동 실종 등에 대응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기관 간의 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